

홈 > 뉴스 > 전국 > 대구·경북

대구문화재단 시작부터 '삐걱'

대표이사 등 선정 놓고 객관·공정성 문제 불거져

2009년 03월 10일 (화) 16:19:59

대구/김천식기자 ✉ intwo21@hanmail.net

대표 없이 출범...市, 명확한 답변없이 유감표명만 대구시는 '문화로 시작하는 대구, 문화를 창조하는 대구'를 모토로 품격 높은 문화창조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문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문화재단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를 이끌어 갈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정 하지도 못한채 출범시키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자본금 194억 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대구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뿐 만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대구문화예술의 양적·질적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사회 의 큰 기대를 받고있다.

그런데, 대표이사 와 이사 선정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대구문화재단이 공식출범하게 되어있었는데,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3월 2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위원별로 채점한 결과, 평가 내용상에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대표이사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표이사 없이 대구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한심한 경우를 연출한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끝까지 확실한 답변은 유보한 채 유감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대구문화재단이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